

테마칼럼

정파로 대립되기

대안으로의 움직임

광주에 살아가는 삶

정보·문화 세상

이 세상과 e-넷북



이상길

“...
농경민족의 문화 속에 2000년 동안 숨어 있었던 가마민족으로서의 기질이 휴대전화, 이동통신 등의 e-세상 문화를 통해 분출되고 있다”

요즘을 갑자기 여러 신문지상에서 넷북에 대한 이야기가 붐을 이루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내가 개인적으로 노트북이란 것을 쓰기 시작했던 것은 1995년도였다. 인터넷은 고작 모뎀으로나 통신이 가능했었고 동영상은 노트북 자체로는 아예 기능도 하지 않았다. 동영상은 보자면 별도의 장치를 부착해야했는데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라서 책상 위에 놓고 볼밖에 데스크 PC처럼 사용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인데 그렇게 붙들어 매 놓을 것을 뭇 때문에 노트북이라고 구입했는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 게다가 구입비용은 얼마나 비쌌던지... 그래도 나름대로는 시대를 앞서간다고 혼자 흐트해 하던 적이 있다.
넷북(Netbook)은 비교적 값이 싸면서도 크기가 작은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를 말한다. 웹상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나 이메일 정도의 인터넷 위주 서비스 이용이 주목적인데 처음 가격은 300~800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한편 정지용량용을 보충하기 위해 플래시 메모리나 메모리카드를 기억 매체로써 이용함에도 용량의 한계가 있어 USB 접속형 기억장치를 연결해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PC로서의 최소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무선랜의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원을 켜면 곧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넷북은 그 시장성이 데스크톱·노트북 컴퓨터

에 비해 한정적이며 기능도 고성능이 아니다. 그럼에도 급속히 시장을 확대해 히트 상품이 된 것은 보다 더 작고 보다 더 운반하기 쉬운 제품, 더욱 더 싼 PC를 바라고 있던 사용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 내놓은 점에 있을 것이다. 지난해 미국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노트북PC 15개 모델 중 13개가 넷북이었는데 이를 본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넷북과 노트북PC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인 2 노트북'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트북은 기존 데스크톱 대용으로 쓰고 이동성이 좋은 넷북을 별도 구매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선통신 발전의 모범 국가이다. 이러한 발달된 통신 인프라 덕분에 우리는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통화할 수 있고 동영상 시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더해 이제 넷북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세상과 e-세상의 발전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러한 발달한 이동통신매체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위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우리 한국인이 농경민족일까, 가마민족이 아닐까'라는 엉뚱한 의문이 내게 다가온다.
10년 넘게 한국인의 기원을 추적해 오고 있는 단국대 생물학과 김옥 교수에 따르면 현대 한국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부계는 남방계가, 모계는 북방계가 주류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반도로 이동한 북방계 민족과 남쪽의 농경민족이 섞이면서 농경문화에 흡수됐다는 뜻이라고 하는 데 뿌리는 가마민족이고 유목민족이라 할지라도 북방 계통이 한반도에 정착하여 산 것이 최소 2천년이므로 2천년 이상을 농경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농경민족에 적합한 게 살아 온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연아, 박지성, 이승엽 등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포츠 선수나 동남 아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탤런트, 가수 등 한류 연예인과 글로벌 무대를 바탕으로 뛰고 있는 기업들의 활동을 볼 때, 그리고 5천만대에 가까운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 대수-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러한 통계 접할 때, 또한 음주가무를 즐기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옛 중국의 기록을 기억할 때 더욱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마민족으로서의 특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농경민족의 문화 속에 2000년 동안 숨어 있었던 가마민족으로서의 기질-뿌리 또 뿌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이러한 잠재된 기질이 휴대전화, 이동통신 등의 e-세상 문화를 통해 분출되고 있다! ... 과연 지나친 주장일까?
<광주정보문화혁신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대법원 준엄사 허용 판결 의미 있지만...

대법원이 21일 준엄사를 허용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준엄사에 대한 획기적인 이정표가 설정된 셈이다. 준엄사 허용 판결은 인간은 누구나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면서 임종을 맞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하지만, 한번 거뒀던 생명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준엄사는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 측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기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용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면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냐 다름없는 경우라면 평소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치료 중단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준엄사에 관한

한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해 왔다. 의료인은 생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무의미한 치료에 매달려야 했고, 가족은 가망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에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대법원 판결은 '죽는 사람은 물론 그 가족을 이젠 그만 피로하지'는 사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준엄사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준엄사의 결정주체와 적용범위, 판정기준, 실행절차 등을 세심하게 정해야 한다. 이는 준엄사의 남·악용 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준엄사 허용이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지거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현대판 고리장'으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삶과 죽음을 원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전남 아동학대 보호기관 2곳 뿐이라니

전남지역에서 아동학대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전문기관은 2곳에 불과해 아동학대에방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06년 305건, 2007년 245건, 2008년 32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해당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는 원가정 보호가 6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보호 71건, 일시보호 43건 등의 순이었다.
원가정 보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전문기관이 부족해서다. 현재 전남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목포와 순천 등 2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을 상담치료를 하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순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직원 9명이 1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아동들을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에서 보호한다는 데 있다. 아동

학대가 발생한 '문제'의 가정에 다시 아이들을 보낸다는 얘기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펴낸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중 84.5%가 부모였다. 피해아동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피해아동들을 가정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아동학대의 재발을 막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 언제든지 제2의 학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피해아동들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전문기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의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풍토야말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중 고 칼럼



현지스님

5·18 제29주기를 맞이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당하신 5월 영령들 앞에 삼가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해마다 5월이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아려오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변혁의 일로, 민주주의 승리의 날로 자랑스러움이 교차하기도 한다. '5월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 없다'는 말이 과연 아닐 것이다.
5·18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28억 아시아인들의 민주주의 큰 지표가 되었

다. 5·18 유적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이전에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5·18의 참다운 의미는 28억 아시아인에게도 그 교훈과 가치가 되새길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가치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아시아 문화중심

후회 없는 결정이어야 한다

으며 민주, 인권, 평화, 평등의 큰 이정표를 마련한 것이다.
그로부터 29년 후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건설은 이러한 5월이 갖는 민주주의의 실현, 인권, 평화, 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문화의전당 건설은 광주시민에게 경제적 이익과 함께 문화인으로서 큰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최근 도청 별관의 철거나, 보존이나의 문제와 약속했다, 속았다 하는 주장들로 인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고 사회 지도자들의 각종 성명서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는 5·18 단체끼리의 갈등 문제가 광주 시민들의 마음마저도 돌로 갈라놓는 반문화적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서로 소통을 중요시한다. 5·18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실현을 상징한다. 현재의 소통 부재에 의한 반목과 갈등은 5·18이 갖는 참다운 의미를 도리어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

도시 조성에 있어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현대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공간이다. 현대문화는 대부분 오감만을 즐기고 발산하는 문화이지, 오감을 통제하고 정화하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정신문화가 소홀하다.
더욱이 복잡한 경쟁사회는 젊은이들에게 정신적 안정과 휴식을 취할 여유를 주지 않아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로 가득 차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외형적인 문화 발전에 비해 내형적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기형적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문화중심도시 권역별 속에 명상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정신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면 미래 우리 젊은이들이 건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빛고을 광주가 인간의 인격과 삶을 윤곽하게 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거듭나길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기고



정병문

무등산을 두고 광주사람들의 논쟁이 뜨겁다.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보존주장과 조례제정을 통해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을 병행하여 지역발전의 방안으로 삼자고 하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무등산의 내재 가치도 가치려니와 너 나 없이 무등산 사람이 유별난 광주 사람들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래를 지닌 사람들 역시 조례제정의 본질이나 찬·반

와 이기적 주장에 매몰되어 이들을 위한 대안이나 적극적 방안 모색에는 인색했던 사실을 떠올려 볼 때 쓸쓸함이 크다. 더욱이 시민적 논의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바 아니고, 민주와 인권, 평등과 평화라는 수사를 당연시하는 광주정신에 비추어 존재의 상실감마저 지울 길 없다.
우리 광주가 진정 한국사회의 시민의식을 선도하고 민주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현재 광주에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이 선

무등산 별곡

논쟁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무등산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증폭되면서 '직접적인 산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접근수단을 통해서라도 비장애 산행인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는 그 감동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만만치 않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광주지역만 해도 공식 등록된 장애인구가 6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 중 중증 신체 장애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수는 출잡이 1만 2천여 명에 이른다. 그동안 자유로이 무등산을 향유하지 못한 원인이 컸던 이들이고 보면,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유산의 정취를 언제든 보다 가까이에서 느껴보고 싶다고 하는 인간적 욕구는 오히려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무등산 조례제정을 둘러싼 논의와 공방이 오랫동안 지속하는 과정에서 보았지만 이들 장애인과 이동약자들의 생각에는 누구 하나 진중한 관심을 내보이지 않았고, 상호 배타적 사고

행되어야 하고, 균형과 조화를 우선시하는 통합적 사고의 틀을 확대해 나가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보편성의 추구나 권리의 주장 또한 형편이나 사안에 따라 제한하거나 밀쳐두어서는 안 될 일이며, 동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이며 시민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일이다.
무등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산이며 후대에 대물림되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만대를 이어갈 절대가치를 지켜내고 훌륭한 자연으로서의 지역발전의 기대를 담아야 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가까이에서 느끼고 향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필수 추상적 개념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부단한 접근 노력이 차이를 좁히는 것도 한 방안임도 깊이 새겨 불 일이다.
<(사)광주장애인연합회장>

'초보 차량' 위협하는 운전문화...배려 아쉬워

아버님이 이번에 주유소에 취직을 하셨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기에 불편하실 듯 해 내 차를 내어드렸다. 하지만, 운전이 서투시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초보운전' 딱지를 좀 크게 해서 차창 뒷면에 붙여 드렸다.
그러나 최근에 '초보운전' 딱지를 떼지 않고 몇 번 차를 끌고나갔다. '초보운전' 딱지를 붙인 차 차를 몰고 나가면 운전자들이 시비를 걸어온다. 뒤차가 뺨빵거리고 좌우로 무리하게 추월하고 옆을 지나며 눈도 흘린다. 심하면 두어라 혼자 구시렁거리다. 신호를 받아 서면 왜 안가냐고 뺨빵대고,

녹색 신호로 바뀌면 1, 2초를 못 잡아 뒤에 서 난리가 난다. 어쩌다가 끼어들기라도 하려고 깜빡이를 넣으면 마치 내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처럼 끼어들기를 못하게 위협적인 운전운전 한다.
이런 나쁜 선임견적 행동이나, 초보 운전자들에 대한 알잡아보는 태도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잘 지키는 법규가 우리를 늘 편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상대방이 좀 모자라더라도 배려해주는 성숙함이 아쉽다.
▲이상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도로위의 무법지' 레커차 불법개조 단속 해야

운전중에 레커차 말고 무서운 걸 못 봤다. 그 불법이 장난 아니다.
첫 번째 불법 사례가 바로 경광등이다. 이 건 온갖 색깔을 다 넣어 요란한 불빛을 내면서 다니는데 다 불법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불법 클랙스이다. 들어보지 못한 희한한 소리를 내며 덤프트럭의 뿜 굴뚝 되는 소리로 주변을 경악시킨다. 세 번째는 경주용 차에 나 필요한 불법 에어램이고, 네 번째는 불법 안테나인데 높이가 4, 5미터나 되는 것이다.
아간에 레커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들의 불법 개조로 문제가 되는 불법 조영 HID는

어쩌면 가장 큰 위험 요소일 것 같다. 이것은 야간 운전중 상대방 운전자에게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할 정도로 강력한 불빛이라 너무나 위험하다.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행위는 후미등이 아닌 일반 헤드라이트를 차 뒤에 부착시켜 뒤따라 가던 차에게 위협적으로 번쩍인다는 사실이다. 레커차가 밤 먹듯 하는 각종 신호위반과 심한 경우 역주행까지 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전국의 모든 레커차의 불법 개조행위를 제발 단속해 주기 바란다.
▲정현창·광주시 광산구 왕동

無等鼓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우주 개발에 1달러를 투자하면 그 경제 효과는 7~12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우주개발의 중심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창설 반세기 만에 이루어낸 업적들을 보면 토플러의 말이 과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NASA가 탄생시킨 기술 중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휴대용 진공 청소기는 달 표면의 암석을 채취하기 위한 기술에서 나왔다. 정수기와 전자레인지는 우주선 내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자 기공명영상(MRI) 장치 같은 첨단 의료 기기는 디지털 신호처리와 영상기술의 산물이다. 헬스장 운동기구 대부분은 원래 장기 채취 우주인들을 위해 개발된 기구가 원조다. 그런가 하면 웰스트리트가 세계 중심이 된다는 NASA의 역할이 컸다. 1980년대 NASA가 사업을 축소하자 수학자와 물리학자들이 대

거 웰스트리트에 진출, 수학 모델을 이용한 파생금융상품과 새로운 투자전략을 개발, 금융혁명을 일으켰다.
조만간 고품 나로우센터가 준공식을 갖고 내달말 국내 첫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기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하지만 첫 발사의 성공 확률은 30%를 밑돈다. 일본도 4수 끝에 성공했다.
단번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한다면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꾸준히 진행해온 우주 연구를 통한 부대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자력위성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3조 원에 달한다. 고층창출도 최대 3만8천4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NASA가 우주개발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미국경제의 한 축이 됐듯이 나로 우주센터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의 관심이 나로우센터로 모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일환 여론대처부장 kih8@

나로 우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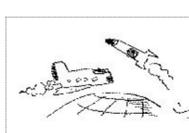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